

블랙핑크, '뚜두뚜두' MV 10억 뷰 돌파... K팝 그룹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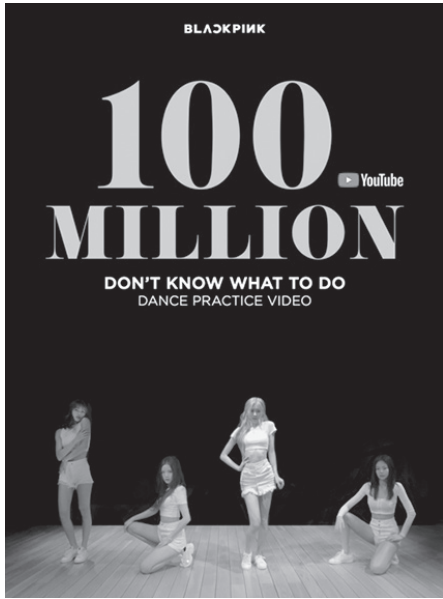
걸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 10억 뷰를 돌파하며 K팝그룹 '최초' 타이틀을 또 한 번 거머쥐었다.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오후 7시 39분 기준 유튜브에서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했다. K팝그룹의 단일 뮤직비디오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두자릿수 억대 뷰를 기록한 것은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SQUARE UP'의 타이틀곡 '뚜두뚜두'는 지난해 6월 발매된 이후 꾸준히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 골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블랙핑크는 또 'SQUARE UP'과 '뚜두뚜두'는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핫 100에서 각각 40위, 55위에 오르며 한국 걸그룹 역대 최고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한편 블랙핑크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올해부터 새롭게 선정한 '떠오르는 스타' 100인에 K팝 그룹으로선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1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타임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타임이 발표한 올해의 '타임 100 넥스트'(TIME 100 Next) 인물 중 하나로 선정됐다. '타임 100 넥스트'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100 Most Influential People) 등을 선정해 발표해 온 타임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리스트이다.

타임은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정치, 과학, 보건 등 분야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100인의 '떠오르는(rising) 스타'를 조명했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타임은 또 "블랙핑크는 아직 미국에서는 떠오르는 스타일 수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최고로 군림하고 있다."며 이들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3천100여만 명으로 세계 어떤 음악 그룹보다 많다고 전했다.

슈퍼엠, 북미 투어 출격 텍사스에서 첫 공연



SM엔터테인먼트가 북미 시장에 선보인 그룹 슈퍼엠(SuperM)이 텍사스에서 북미 라이브 투어의 문을 열었다.

12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슈퍼엠은 전날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약 1만석 규모 디키즈아레나(Dickies Arena)에서 '위 아 더 퓨처 라이브 인 포트워스'(We Are The Future Live in Fort Worth)를 열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북미 투어 '위 아 더 퓨처 라이브' 첫 공연이다.

공연에선 약 2시간 동안 16곡 무대가 감각적 연출과 함께 펼쳐졌다. 첫 미니앨범 '슈퍼엠' 타이틀곡 '자핑'(Jopping)과 수록곡들은 물론, 신곡인 '데인저러스 우먼'(Dangerous Woman)과 '위드 유'(With You)도 공개했다. 각 멤버의 개성이 담긴 솔로 무대도 진행됐다.

슈퍼엠은 사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127의 태용과 마크, 중국 그룹 웨이비의 루카스와 텐 등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7명이 모인 팀이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기획을 이끌었고,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레이블 캐피톨뮤직이 손잡고 미국 활동을 뒷받침한다. 첫 미니앨범 '슈퍼엠'은 지난달 미국 무대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슈퍼엠은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11월 13일), 애틀랜타 인피니티 에너지 아레나(11월 15일), 워싱턴 DC 인근 이글뱅크 아레나(11월 17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11월 19일) 등지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이어 내년 1월 말부터는 샌디에이고·로스앤젤레스·시애틀 등 미국 서부와 캐나다 밴쿠버 등지에서 공연을 펼친다.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와 재결합 절대 안해"

안젤리나 졸리(42·사진)가 3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인 배우 브래드 피트(55)와 절대로 재결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졸리는 13일 미국 매체 '하퍼스 바자'와의 인터뷰에서 "전 남편 브래드 피트가 나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며 "브래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와의 재결합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래드 피트와 아이들의 양육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살고 싶어도 브래드 피트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며 "브래드 피트는 아이들이 평탄

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이들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길 바란다"고 말해 서로 다른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0월 안젤리나 졸리는 해외 다수 매체를 통해 "지난 2014년 브래드 피트가 프랑스에서 함께 결혼해 살도록 강요했다"며 "압박감을 느꼈었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지난 4월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LA법원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두 사람은 아이들의 신체적, 법적 양육권을 공유하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는 브래드 피트와 이혼 후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고 있다. 브래드 피트는 보석 디자이너이자 여성 치유사 사트하리 칼사(50)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Candice K. Kim (김경아)
714-373-6883
764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1

CA Insurance Agent #: 0B30329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왕초보 전문 · 가가 찬 영어교육

"참 영어공부 열심히 할 뻔했다"

너무나 미안하게 쉬운 방법 제시
I Stand Behind my Teachings

-공개 강의내용-

하고 싶은 말이 영어로 나오게 습득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영어를 첫 수업에 한 눈에 들어오게 영어 헛수고 방지법 공개

시험위주와 상업주의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다.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무료교육 실시
피 같은 돈과 세월을 아끼세요.

루이스 영어 전문 교실

213.284.4725 4055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714.797.4028 15435 S. Western Ave., Gardena, CA 90249
905 S. Euclid St. #208, Fullerton, CA 92832

